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의 양상

변숙자*

- I. 머리말
- II. 〈칠성본풀이〉의 서사적 특징
- III.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적 면모
- IV. 〈칠성본풀이〉의 신앙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요약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의 12본풀이 중 하나로 일반신본풀이로는 유일한 사신(蛇神)본풀이이다. <칠성본풀이>의 신격은 사신인데도 ‘칠성신’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어 북두칠성신과 혼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이하다. 본고는 이러한 신격의 이중적 명칭에 주목하여 사신본풀이로서의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적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칠성본풀이>는 출생화소에서 칠성기자형과 사찰기자형으로 구분되는데, 칠성기자형 화소에는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에서 칠성제와 칠성신의 관계, 칠성신의 행위와 직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칠성신앙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출생 이후의 서사는 오히려 사신(蛇神)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집중된 사신신화로 바뀌면서 칠성신앙적 측면은 약화된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의 칠성기자 화소는 제주도의 일반곳인 불도맞

* 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이나 칠성제에서 복두칠성신을 기자신격으로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며, 삼신신앙과 교섭하며 전승되는 과정에서 칠성신앙이 삼신신앙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복두칠성의 영기로 태어난 아이가 사신으로 변신하여 칠성신으로 숭배될 수 있는 것은 뱀과 복두칠성의 풍농신적 속성에서 그 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칠성본풀이>가 칠성신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사신신화적 측면이 강한 이유는 칠성신의 권능보다 사신의 권능이 강한 신앙권에서 형성·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앙과 삼신신앙, 칠성신앙과 사신신앙 등 신앙의 통합 양상과 전승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신앙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칠성본풀이>, <칠성풀이>, 칠성신앙, 사신신앙, 신앙사

I. 머리말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이라 칭하는 사신(蛇神)의 내력담이다. 제주도의 12본풀이 중 하나로 일반신으로서의 사신(蛇神)본풀이로는 유일하다. 본풀이는 주술종교적 의례인 무속제의에서 심방들에 의해 노래 불려지는 것이므로¹⁾ 민간신앙의 형태를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 <칠성본풀이>는 전도(全島)에 일반적으로 분포한 일반신의 본풀이라는 점에서 사신(蛇神)신앙이 제주도민의 일반적인 신앙이었음을 알려준다.

<칠성본풀이>가 특이한 점은 사신인 신격을 칠성신이라 칭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칠성신은 복두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칠성신앙의 대상이다. 칠성신앙은 고대부터 존재해 온 성신(星辰)신앙의 일종으로서, 성신 중 복두칠성을 가장 특징적이고 중심적인 신으로 인식하는 신앙이다²⁾. 이는 전국에 널리 퍼져있으며, 대체로 수명과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³⁾. 그런데, <칠성본풀이>는 복두칠성신에 기자(祈子)하여 태어난

1)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5쪽.

2) 서경진, 「한국칠성신앙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14, 1980, 31쪽.

3) 서경진, 위의 논문, 7-9쪽.

자식이 사신이 되지만 결국 칠성신이라 불리게 되는 과정이며, 칠성제를 지내어 수명을 연장하는 화소가 들어있어 복두칠성 신앙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즉,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본풀이이자, 두 신앙의 융합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앙사적 의의가 있다.

<칠성본풀이>와 칠성신앙과의 관련성은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현용준·현승환은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의 실태를 살펴면서 <칠성본풀이>는 사신신화에 복두칠성신앙인 칠성기도 화소가 수용되어 변개된 형태임을 지적하였다⁴⁾. 박종성은 별자리 신화인 복두칠성 유래담과 칠성본풀이의 상관성을 검토하면서 칠성신앙적 측면을 제시하였고⁵⁾, 김현선은 <칠성본풀이>가 제주도의 세 가지 칠성신앙 즉, 인간의 수명과 생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앙, 부신(富神)인 뱀신앙으로서의 칠성신앙, 삼신신앙의 일종인 ‘불도맞이’의 칠성신앙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칠성신앙의 변이유형 중 하나로 보았다⁶⁾. 문무병은 제주도 칠성신앙의 문화계통 중 남방의 해양문화와 관련된 사신칠성신앙이 <칠성본풀이>에 나타남을 설명하였다⁷⁾.

이러한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칠성본풀이>를 사신신화로 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칠성신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신신앙적 입장에 치중하여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신앙적 측면을 간략히 언급할 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칠성본풀이>와 칠성신앙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칠성본풀이>의 이본을 검토하면서 서사구조를 정리하고, 칠성신앙적 측면이 강한 화소를 살펴본 후, <칠성본풀이>와 칠성신앙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칠성본풀이>가 지닌 본풀이적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
- 4)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 1995.
 - 5) 박종성, 「구비전승의 삼태성과 복두칠성 신화 일고」,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 6) 김현선,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 7) 문무병, 「탐라고문화와 칠성신앙」, 『민족미학』 11, 민족미학회, 2012.

II. <칠성본풀이>의 서사적 특징

지금까지 채록된 <칠성본풀이>는 총 10편이다. <칠성본풀이> 각편은 칠성신앙이 제주도의 사신신앙과 어떠한 형태로 결합되어 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칠성본풀이 이본 자료⁸⁾

연번	편명	제보자	조사자	발표문헌	연도(채록)
①	칠성본পুর이	서귀포 남무 박봉춘	秋葉陸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②	칠성본	표선면 여무 이무생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1963)
③	칠성본	안덕면 남무 고창학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1963)
④	칠성본풀이	구좌면 남무 고대중	장주근	韓國の民間信仰	1973(1962)
⑤	칠성본풀이	제주시 남무 안사인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1969)
⑥	칠성본	-	-	風俗巫音	1982
⑦	칠성본풀이	남무 한생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1998
⑧	칠성본풀이	구좌읍 남무 이중춘	강경식 외	동북 정병준택 시왕맞이	2008
⑨	칠성본풀이	조천읍 여무 이용옥	허남춘 외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⑩	칠성본풀이	한림읍 남무 양창보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위의 자료 중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이후에 채록된 자료들은 이전 자료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료 <각편>은 하나의 완결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인물의 명칭이나 세부적인 표현면에서의 차이를 제외하면 주인공의 출생 이후 사신변신(蛇神變身), 입도(入道), 신으로의 좌정이라는 과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출생화소를 중심으로 한 본풀이 서두 부분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각편 중 ①, ②, ③, ⑥, ⑩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 칠성제를 드린 후 북두칠성신의 도움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딸을 잉태하는 칠성기자형 화소가 들어 있다⁹⁾. 이에 비해 ④, ⑤, ⑦, ⑧, ⑨에는 절에서 불공을 드려

8)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27쪽 자료 참조, 필자 재편집 및 추가. 자료 중 ①~⑤는 최근 재발행된 문헌에 실려 있다. 각각 ①은 『朝鮮巫俗の研究』上(1988), ②와 ③은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2002), ④는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2001), ⑤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2007)이다. ⑥은 『風俗巫音(呪祀文)』上(1994)에 실려 있다. 자료 채록 시기는 신앙의 전승형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만큼 최초의 발표 문헌을 표에 넣어 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간행된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딸을 잉태하는 사찰기자형 화소가 나타나며, 복두칠성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이 매우 간략하게 서두를 처리하고 있다.

<칠성본풀이>의 출생화소에 나타난 서사단락을 칠성기자형(A)과 사찰기자형(B)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칠성기자형 <칠성본풀이>

- (1) 장설용과 송설용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무자(無子)).
- (2) 동개남 상주절 중이 칠성제를 지내라고 권유하다.
- (3) 장설용 부부가 칠성단을 만들어 칠성제를 지내다(기자치성).
- (4) 일곱 성군(北斗七星)이 칠성상을 받으러 장설용 집으로 내려오다(칠성신의 하강).
- (5) 일곱 성군 중 넷째 성군이 가장 늦게 도착하다.
- (6) 여섯 성군이 모두 장설용 부부에게 명과 복 등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넷째 성군은 봉사가 되게 하겠다고 말하다.
- (7) 넷째 성군이 칠성단에 있는 떡 두 개를 주머니 속에 숨기어 가다.
- (8) 넷째 성군이 떡으로 장설용 부부의 눈을 멀게 하다(칠성신의 효험-봉사).
- (9) 장설용 부부가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 죽을 위기에 놓이다.
- (10) 장설용 부부가 봉사가 된 덕분에 목숨을 보존하다(칠성신의 영험-수명연장).
- (11) 장설용 부부가 칠성제를 지낸 효험이라 생각하고 다시 칠성제를 지내다.
- (12) 넷째 성군이 다시 장설용 부부의 눈을 뜨게 하다(칠성신의 영험-개안).
- (13) 장설용 부부가 태기를 얻은 후 딸을 낳다(칠성신의 영험-여아탄생).
- (14) 장설용 부부가 딸의 이름을 칠성아기라 짓다(작명).

B. 사찰기자형 <칠성본풀이>

- (1)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무자(無子)).
- (2)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가 동개남 은중절에 원불수륙(願佛水陸)을 드리다(기자치성).
- (3) 장설룡과 송설룡 부부가 태기를 얻은 후 딸을 낳다(여아탄생).

A와 B는 모두 크게 무자(無子), 기자치성, 여아탄생의 서사가 중심을

9) 현용준은 <칠성본풀이>의 출생화소를 구분하면서 어디에 기사를 행하느냐에 따라 칠성기자형과 사찰기자형으로 나누었다.(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39쪽.)

이룬다. 모두 기자회견을 행한 후 아이를 낳았다는 결과적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A는 칠성신의 하강, 흥협, 영험의 과정을 구체화시켜 칠성신의 영향력과 권능을 강하게 제시하려는 데 비해, B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A에서는 칠성신의 활약상을 구체화시켜 칠성신의 직능을 돋보이게 하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제주민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칠성신의 직능과 권능이 구체화 될수록 칠성신의 영기로 태어난 아이가 신격화되었을 때 갖는 신성성 또한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곱 칠성이 인간에게 주는 복, 빗재 성군이 연장해 주는 수명, 봉사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개안(開眼) 등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로서 칠성신의 신성성을 강화시켜주는 화소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B는 칠성신의 구체적 행위와 사건을 생략하고, 바로 잉태 이후의 이야기를 전개시킴으로써 잉태된 아이가 갖게 될 직능 즉 사신(蛇神)의 직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불공을 드리자 바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잉태된 아이의 신성성을 드러내는 극적 장치가 미약하다. 본풀이의 서사 전개로 볼 때, 아이를 잉태하기까지의 과정이 극적으로 형상화되거나, 아이의 잉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적 존재가 구체화되었을 때 신격화된 아이의 신성성, 신적 존재의 영험성이 더욱 크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A는 B보다 신격화 양상이 체계적이다.

<칠성본풀이>에서 출생화소는 서사 흐름으로 볼 때, 칠성신앙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출생화소가 구체화 된 A를 중심으로 <칠성본풀이>의 서두에 나타난 서사적 특징과 칠성신앙적 측면을 살펴보고 하겠다.

(1)에서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 기자치성으로 주인공을 낳는 화소는 제주도의 여러 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칠성본풀이>의 각 편에서는 장설용 부부가 칠성제를 지내게 된 동기 즉, 문제적 상황이들로 나뉜다. ①,③,⑥에서는 부유하여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자식이 없는 것이 딱 하나의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②와 ⑩에서는 부부가 매우 가난하게 산다는 삶의 문제와 더불어 자식마저 없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칠성제를 지내는 목적이 전자에서는 잉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후자에서는 잉태와 부(富)의 획득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칠성신의 직능이 기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부신적 성격과도 관련됨을 시사한다. 특히, 전자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으로 칠성제를 지내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 가난한 살림에 칠성제를 지낼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 재물을 마련한다. 후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칠성신을 위하는 정성이 더욱 극진하게 표현되면서 하늘의 칠성신을 감동시켜 아이를 잉태하는 극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극적 서사 전개를 통해 칠성신에 대한 숭배의식을 강화하고자 한 의도적 설정으로 보인다.

(2)에서 장설용 부부에게 칠성제를 지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무속인이 아닌 스님이라는 것은 민간신앙과 불교의 습합(習合) 양상을 보여준다. 스님은 칠성제를 지내는 방법까지 가르쳐줌으로써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찰기자형 출생화소가 나타나는 B의 유형 중 절에서 칠성기도를 드려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㉑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나타난다. 그런데, ㉒에서는 점쟁이가 칠성제를 권유하며, ㉓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칠성제를 지낸다. 칠성제를 지내는 장소도 절에서 지내는 ㉔을 제외하면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자치성을 위한 불공은 불교신앙이 유입된 이후의 모습이며, 그 이전에는 집에서 칠성제를 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런 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칠성신앙은 불교 유입 이전에 민간신앙으로 정착된 신앙의 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3)에서 기자치성의 방법으로 칠성제를 지내는 것은 B의 (2)에서 수륙 불공을 드리는 것과 신앙적 측면에서 확연히 달라 <칠성본풀이>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핵심 화소가 되고 있다. A는 기자치성으로 칠성제를 지낸 후 복두칠성신의 강림과 활약상이 전개되면서 출생화소가 매우 풍부하게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B는 복두칠성신과 관련된 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절에서 불공을 드려 아이를 낳았다는 과정이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다. A와 B의 확연한 차이는 바로 기자치성의 방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즉, A는 칠성신앙, B는 불교신앙을 통한 기자치성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신앙사적 측면에서 볼 때 A가 B에 비해 고대적 형태의 출생화소로 보인다.

(4)에서 복두칠성신의 하강은 앞으로 전개될 복두칠성신의 직능과 관련되면서 이 본풀이가 복두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

준다. 특히, 일곱 성군이 칠성상을 받으러 왔다고 함으로써 일곱 성군 즉 북두칠성이 칠성신으로 숭배되었음을 보여준다. 인간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신이 강림하는 화소는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여러 신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5)에서 일곱 성군 중 가장 늦게 도착한 넷째 성군은 (6)에서 (13)까지의 서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 성군이 차례로 내려온다면 일곱째 성군이 가장 늦게 내려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중 넷째 성군이 가장 늦게 내려왔다고 설정함으로써 넷째 성군을 주목하게 한다. 넷째 성군의 이름은 동성군(①), 목성군(②), 강성군(③,⑥), 원성군(⑩)으로 본풀이마다 각각 다른 명칭으로 불려진다. 제주도의 작은곳인 칠성제에서 제시하는 북두칠성의 순서는 대성군, 간성군, 목성군, 원성군, 수성군, 계성군, 진성군 순이다¹⁰⁾. 그러나 북두칠성의 순서나 명칭에 상관없이 가장 늦게 도착한 성군은 본풀이마다 넷째 성군으로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는 북두칠성의 일곱 별자리 중 네 번째 성신(星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대적 사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6)에서 넷째 성군은 다른 성군들과 달리 부부에게 흥함을 주겠다고 하면서, (7)에서처럼 칠성단에 있던 떡을 훔쳐오는 비정상적 행위를 보이며, (8)에서처럼 부부의 눈을 멀게 하는 흥함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9)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여 (10)에서처럼 수명을 연장해 주기 위한 초월적 존재의 영험한 행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6)에서 여섯 성군이 부부에게 복을 주는 긍정적인 행위와 같은 맥락이다. 즉, 일곱 성군은 모두 칠성제를 지낸 부부에게 다양한 복을 주는 긍정적인 신격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11)에서 부부가 칠성신의 도움으로 수명을 연장하게 된 것임을 알고 다시 칠성제를 지내자 (12)에서처럼 부부의 눈이 다시 뜨이고, (13)에서처럼 태기가 있게 된다. 따라서 (6)에서 (13)까지 넷째 성군의 활약은 북두칠성신을 대표하여 칠성신의 영험을 강조하고 확신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곳에서 진행되는 본풀이적 특성을 생각할 때 부부가 칠성제를 두 번이나 지내는 이 부분은 신앙민들에게 칠성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1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29쪽.

(14)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칠성아기’라 짓는 서사는 ⑥,⑨에서 나타난다. 이는 칠성신과 태어난 아이의 긴밀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장치로서, 신격인 사신(蛇神)을 ‘칠성’이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를 통해 복두칠성신의 현신이 칠성아기이며, 이 칠성아기가 사신으로 환생하여 사신칠성이 되었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사신은 복두칠성신의 신격을 이어받은 존재로서 하늘의 칠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적능의 신격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출생 이후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사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칠성신적 속성보다 사신적 속성을 더욱 강하게 지닌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사신적 속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사신신앙적 측면만을 유지시킨 채 칠성신앙적 측면이 약화된 유형이 B에 해당한다. 그러나 A는 사신적 속성 이전에 지녔던 칠성신적 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두 가지 신앙적 형태를 동시에 전승시킨 유형에 해당한다.

주인공이 출생 이후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은 A와 B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A에 이어 공동된 서사단락을 전개시키면 다음과 같다.

- (15) 애기씨가 일곱 살 되던 해 부모가 벼슬 살러 떠나다(부모의 떠남).
- (16) 애기씨가 부모가 탄 가마에 매달려 가다 목은 각단 새 각단 밭 아래로 떨어지다.
- (17) 애기씨가 지나가던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세 번째 스님이 애기씨를 데려가다.
- (18) 스님이 애기씨를 데리고 다니며 유태시키다(유태).
- (19) 장설용 부부가 애기씨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찾아다니다.
- (20) 애기씨가 장설용 부부의 꿈에 현몽하여 자신을 찾을 방법을 알려주다.
- (21) 장설용 부부가 시주 받으러 온 스님을 추궁하여 애기씨를 찾다.
- (22) 장설용 부부가 애기씨가 유태한 것을 알고 무쇠석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리다(석함유출).
- (23) 애기씨가 무쇠석함에 갇힌 채 바다에 떠다니다 제주에 들어오다(입도).
- (24) 애기씨가 여기 저기 들어올 곳을 찾아 당신들과 대립하다 함터으로 들어오다.
- (25) 일곱 해녀가 무쇠석곽을 주워 다투니 송침지영감이 중재하다.
- (26) 송침지영감이 무쇠석곽을 열어 보니 어미뱀과 일곱 마리 새끼 뱀이 들

어있다(사신변신).

- (27) 일곱 해녀와 송침지영감이 뱀에게 더럽다고 침을 빨고 던져 버리다.
- (28) 일곱 해녀와 송침지영감이 병에 걸려 문복을 하니 남의 나라 칠성부군을 건드린 탓이라 하다.
- (29) 일곱 해녀와 송침지영감이 칠성제를 지내어 위하니 병이 낫고 부자가 되다.
- (30) 마을 사람들이 일곱 해녀와 송침지영감을 따라 칠성신을 위하니 부춘이 되다.
- (31) 여덟 모녀 뱀이 함덕을 떠나 도성 안으로 들어가 송대장부인 집 조상으로 모셔지다.
- (32) 여덟 모녀 뱀이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각각 좌정처를 잡기로 하다.
- (33) 여덟 모녀 뱀이 각각 동헌할망, 관청할망, 창고할망, 사령할망, 마방할망, 과원할망, 밧칠성, 안칠성이 되다(좌정).

출생 이후의 서사는 크게 부모의 떠남, 유태, 석함유출, 입도, 사신변신, 좌정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여기에서는 출생화소에서 보이는 칠성신양적 면모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몸에서 뱀으로 변신하여 신격으로 좌정하는 과정이 상세화 되어 있다. 주체적 행위를 하는 대상도 출생화소에서는 복두칠성신이었으나, 주인공의 출생 이후에는 뱀신이 된 칠성아기가 행위의 주체가 된다. 칠성아기가 무쇠석함 속에서 완전히 뱀으로 변신하여 사신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내력담에 서사가 집중되면서 사신신양적 측면이 강조된다. 특히 (22)에서 (32)까지 보이는 무쇠석함 유출, 제주 입도, 단골 설정 과정은 사신의 내력담인 <월정보향당신본풀이>와 유사하다¹¹⁾. 일반적으로 <칠성본풀이>가 사신신양을 보여주는 사신본풀로서 주목받아 논의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칠성본풀이>가 <월정보향당신본풀이>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거나¹²⁾, 복두칠성의 영기로 7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사신신화가 복두칠성신양의 유입으로 변개를 일으킨 것으로서 본래의 사신 출생화소는 더 고대적인 모티프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논의¹³⁾가 이에 해

1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423쪽.
 12) 김현선, 앞의 논문, 268-275쪽.
 13)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29쪽.

당한다.

그러나, <칠성본풀이>는 온전한 칠성신화를 잃어버리고, 출생화소에 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한 채 존재하는 칠성신화의 한 변이형태로도 볼 수 있다. <칠성본풀이>는 출생화소에서 보이는 칠성신앙적 면모를 이끌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곱’이라는 수와 관련짓는 양상이 나타난다. 일곱 살, 일곱 해녀, 일곱 자식의 설정과 ‘안칠성’, ‘뱃칠성’이라는 신격의 명칭이 그러한 예이다. 복두칠성신의 이야기가 출생이후까지 확장되어 복두칠성신이 되는 온전한 신화를 구현해 내지는 못하였지만, 본풀이 곳곳에 남아 있는 칠성신앙의 흔적들은 복두칠성을 신격화하여 신화를 생성해내고자 했던 신앙민들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15)에서 부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아기씨에게 (18)에서처럼 스님이 접근하여 유태를 시키고 가는 화소는 <초공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아기씨의 나이가 열다섯 살로 설정되어 있다. 아이를 유태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일곱 살보다는 열다섯 살이 적합하지만, <칠성본풀이>에서는 ‘일곱’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칠성신앙과의 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1)에서 함덕을 떠난 모녀 뱀이 ‘별이 송송 칠성골’로 들어가 송대감집의 조상신이 되는 과정을 보이는 ②와 같은 각편은 이러한 의도적 설정과 연관된다. (33)에서 어미 뱀은 대체로 집 안 고향에 ‘안칠성’으로 좌정했다고 하지만, ③과 같은 각편에서는 ‘인간에 복두칠성으로 들어서서 명과 복을 지니게 해 주고 아기 번성을 시키고 가지전답 유기제물’을 번성시켜주는 칠성신으로 좌정한다¹⁴⁾. 이러한 내용은 본풀이 서두에서 보이는 복두칠성신의 존재와 그 영기로 태어난 아이가 ‘칠성아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사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격의 이름이 ‘칠성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 따른 서사적 개연성을 높여 준다. 따라서 ‘칠성신’은 복두칠성신적 속성과 사신적 속성의 이중적 속성을 지닌 신격으로 더욱 신성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칠성본풀이>의 전체적인 서사 전개 과정에서 출생화소는 복두칠성신의 권능을 구체화시키는 칠성신앙적 측면을 강하게 지

14) 진성기, 앞의 책, 161쪽.

니고 있다. 그러나, 출생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신의 내력담에 집중된 서사를 보이면서 칠성신앙적 면모보다는 사신신앙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칠성신화가 사신신앙이 강한 집단에 전승되면서 온전한 칠성신화로 전승되지 못한 채 사신신앙에 기댄 변이형으로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백신화인 <칠성본풀이>가 어느 한 지역이나 당에서 전승되는 본풀이가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서 일반적인 신앙권을 형성한 일반신본풀이라는 점은 사신신앙의 세력권이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매우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칠성신앙은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한편의 칠성신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신신화의 한 변이형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이다. 칠성신앙과 칠성신화가 반드시 정적 관계라 할 수는 없으나, 제주도에서 사신본풀이가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신신앙이 매우 강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칠성신앙권을 확장시켜 줄 칠성신의 본풀이는 상대적으로 구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Ⅲ. <칠성본풀이>의 칠성신앙적 면모

칠성신앙은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 중 북두칠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¹⁵⁾ 예부터 북두칠성은 국토 수호, 재앙 소멸, 사람의 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성신(星辰)으로 인식되어왔다¹⁶⁾. 이는 우리 나라에서 고대부터 존재해 온 성신숭배 사상의 일종으로서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칠성벽화, 신라 김유신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칠성무늬, 백제 영묘사(靈廟寺)에서 행해진 오성제(五星祭)에 대한 문헌기록이 그 증거이다¹⁷⁾. 칠성신앙은 불교와 도교의 전래와 함께 이들과 교섭하며 전승되었는데,¹⁸⁾ 특히 조선시

15) 황석주, 「지리산 일대 불교사찰과 토속신앙의 공존양상-산신·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48쪽.

16) 서경전, 「한국의 칠성신앙연구」, 『원광대논문집』 14, 1980, 62쪽.

17) 서경전, 「한국칠성신앙을 통해 본 도·불교섭관계」, 『한국종교』 10, 1985, 46쪽 재인용.

18) 서경전, 「한국의 칠성신앙연구」, 위의 논문, 65쪽.

대에는 제반성신 중 칠성신앙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¹⁹⁾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이라는 신격의 이름에서부터 칠성신앙적 면모가 드러나 제주도의 칠성신앙적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 장에서는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신앙적 속성을 강하게 지닌 신화소를 추출하여 칠성신앙이 어떠한 형태로 민간에 전승되었는지 살펴 보겠다.

1. 칠성기자 화소와 불도맞이

<칠성본풀이>의 서두에서 보이는 칠성기자 화소는 제주도에서 기자 의례로 행하는 불도맞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불도맞이는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삼승할망을 위한 굿이다.²⁰⁾ 그런데, 불도맞이의 상차림을 보면 할망상 아래에 제물을 일곱 개 씩 차린 칠원성군(七元星君)상을 놓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칠원성군상 아래에는 다시 데령상, 보답상, 공깃상을 차리는데 이 중 가운데 놓이는 보답상에는 할망드리(무명)와 칠원성군드리가 함께 오른다. 또한, 제의 과정에서는 칠원성군께 축원하여 소지(燒紙)를 사르는 단계도 있다²¹⁾. 뿐만 아니라 불도맞이의 <할망본풀이>에서는 아기를 낳다가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을 지경이 된 임박사가 칠성단을 설비하여 기원하는 모습이 나온다.

아방 몸에 흰 피 석 들 열흘, 어명 몸에 피 석 들 열흘 아홉 들 열 들 준삭을 체와도 어딜로 행복시킬 츠렐 물란 열두 들이 지나가난 아기 어명 죽을 스경 뒤편 간다... 동이용궁 따님애기 곱흔 지망에 은그새 받아들인 애기어명 느단 츠드랭이 숨숨이 굿아놓고 아기 행복 시켜가니 구덕 잃고 거 일흐게 뒤편가난...

임박사는 이런 원통과 청원이 어디 이시랴 어느 원에 신원회리, 동해산 서해산 남해산 북해산 아양안동 금백산에 올라사 칠성단을 무어놓고 옥황상저에 천안낙화 금바랑 쇠를 올렸더니.....²²⁾

19) 서경진, 「한국칠성신앙을 통해 본 도·불교섭관계」, 47쪽.

20) 현용준, 앞의 책, 18쪽.

21) 현용준, 위의 책, 92~93쪽.

22) 현용준, 위의 책, 98쪽.

칠성단을 설비하여 기원을 했다는 것은 칠성제를 지냈다는 것인데, 불도맞이에서 칠원성군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풀이는 제의 연행 과정에서 노래 불러지므로 심방은 임박사가 기원하는 대목에서 실제 칠성제를 지내는 의례를 행하게 되고, 이 때 필요한 것이 칠원성군을 위한 칠성단 즉 칠원성군상인 것이다. 곳의 제의 준비물은 실제 곳의 연행과 관련이 깊다. 불도맞이에서 할망상 위에는 꽃사발이 있고, 할망드리(무명)나 칠원성군드리, 걸랫배, 바랑끈 등의 포류(布類)를 준비하는데, 이는 불도맞이에서 불러지는 <할망본풀이>·<이공본풀이>의 구연이나 제의 연행 과정에 직접 필요한 물품들이다.

<할망본풀이>에서 임박사가 칠성단을 차리고 죽어가는 아이와 산모를 살려달라고 기원을 하는 모습은 <칠성본풀이>에서 장설용 부부가 아이를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칠성단을 차려 아이의 생명과 관련된 기원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할망본풀이>의 삼승할망과 <칠성본풀이>의 칠성신은 완전히 다른 신격이지만, <칠성본풀이>에서 북두칠성신에게 칠성단을 설비하여 기자치성을 드리는 것은 기자의례인 불도맞이에서 칠원성군상을 차려 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와 같이 기자의례인 불도맞이에서 삼승할망 만이 아니라 칠원성군을 위하는 것은 삼승할망과 북두칠성이 모두 기자신으로 숭앙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도맞이의 주인공은 삼승할망으로서 잉태와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권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할망상이 맨 위에 차려지고, 그 아래 기자와 관련하여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칠원성군상이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선은 이와 관련하여 불도맞이 제의 속에 칠원성군이 함께 모셔지는 것은 제주도의 칠성신앙이 삼신신앙의 변형임을 의미한다고 보아²³⁾, 제주도의 칠성신앙이 삼신신앙과 일정한 교섭을 이루며 전승되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런데 제의 과정에서 상차림의 배치는 신격의 상하관계와 권세를 상

23) 김현선은 ‘불도맞이’제의 속에 칠원성군이 함께 모셔진다는 것을 예로 들어 제주도의 칠성신앙이 삼신신앙의 변형일 수 있음을 간단히 언급하였다.(김현선, 앞의 논문, 26~27쪽.)

정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신의 중심이 되는 신이 중앙에 배치되고, 그 이의 신들이 좌우나 아래에 배치되어 각각의 권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찰의 대웅전이나 제사상의 구도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불도맞이 상차림에서 할망상과 칠원성군상의 배치는 삼승할망과 칠성신의 상하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할망상이 위에, 칠원성군상이 그 아래에 배치된다는 것은 기자신격으로서 최고의 신격은 삼승할망이고, 그 아래의 신격이 칠성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기자신앙은 삼신신앙을 중심으로 칠성신앙이 통합된 양상으로 보아야 한다. 본풀이나 제의 과정은 신앙의 형태와 신의 권능, 신앙권의 이동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불도맞이의 상차림은 삼신신앙과 칠성신앙의 신앙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불도맞이의 상차림만을 보고 삼승할망이 상위신이고, 칠원성군이 하위신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권이 형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다양한 신앙의 통합 과정과 세력이 본풀이에 상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통합 양상을 <칠성본풀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칠성기자 화소와 칠성제

<칠성본풀이>에서 장설용 부부는 기자를 목적으로 칠성제를 지낸다. 그런데, 실제 제주도의 일반곳에도 칠성제가 있다. 이는 예축의례로서 북두칠원성군에게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곳이다²⁴⁾.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제는 기자를 목적으로 하고, 일반곳에서 행하는 칠성제는 수복(壽福)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제를 지내기 위해 칠성단을 차리는 모습은 일반곳에서 칠성제의 설비 과정과 유사하다. <칠성본풀이>에서 칠성단을 차리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칠성불공을 어평호영

24) 현용준, 앞의 책, 18쪽.

들입네까?”
 “칠성단을 무어놓고
 태역단풍 쟁길쳐 좋은 딜로
 팬풍 일곱에, 제상 일곱에,
 불도 일곱에, 상돌 일곱에
 메도 일곱에 펜도 일곱에
 잔도 일곱, 찰도 일곱
 맹쌀 일곱
 각서추물 출려놓고
 칠성기도를 드립서.”²⁵⁾

<칠성본풀이>에서 일곱 쌍 제물을 설비하여 칠성단을 설비하는 모습은 불도맞이에서 기메(旗類)로 칠원성군송낙을 7개 준비하고, 제물·무남제·술잔을 각각 7개씩 놓아 칠원성군상을 차리는 것과 같다²⁶⁾. 이는 불도맞이에서 칠원성군상 차림과도 같다²⁷⁾. 이는 모두 복두칠성인 일곱 칠성신을 모시는 동일한 제의임을 알게 한다. 일반곳에서 행하는 칠성제의 주된 목적은 명과 복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제차 과정 중 ‘군문열림’²⁸⁾에서 ‘아무 자손이 원명(元命)이 짧아지와 복두칠원성군을 위함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청케’²⁹⁾에서는 일곱 칠원성군을 모두 강림시킨 후 ‘원불수륙입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기자치성의 목적도 존재함을 보인다. 따라서 칠성제는 복두칠성에 기자(祈子)나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의례 행위로서 칠성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칠성본풀이>의 출생화소는 이러한 칠성신앙의 전승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뱀을 죽이거나 죽은 뱀을 봐서 병이 난 경우 ‘칠성새남’이라는 치병의례를 행하는데³⁰⁾, 칠성신상(七星神像)을 만들어 놓고 신상(神像)의 입에 쌀 일곱 알을 물려 놓는다. 곳에서 뱀신은 ‘칠성

25) 진성기, 앞의 책, 155쪽.
 26) 현용준, 앞의 책, 92-93쪽.
 27) 현용준, 위의 책, 428쪽.
 28) 현용준, 위의 책, 428쪽.
 29) 현용준, 위의 책, 429쪽.
 30) 현용준, 위의 책, 18쪽.

님'이라 칭하는데, <칠성본풀이>에서 뱀신을 '칠성님'으로 칭하는 것과 같다. <칠성본풀이>에서 뱀신은 어미 뱀과 일곱 딸 뱀을 합하여 8마리이지만, '일곱'이라는 수에 한정하여 뱀을 모두 '칠성'이라 부른다. 사신본풀이에서 뱀신을 '칠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당신본풀이 중 사신본풀이에 해당하는 <월정본향당본풀이>나 <토산알당본풀이>도 <칠성본풀이>처럼 사람이 뱀으로 변하여 사신(蛇神)이 된 경우인데, 이 본풀이에서는 뱀신을 칠성이라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뱀을 칠성이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칠성본풀이>나 칠성새남이라는 곳에서 뱀신을 '칠성'이라 칭하는 것은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신본풀이인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앙과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뱀신을 칠성이라 부르는 '사신칠성' 개념은 칠성신앙의 변이형으로 보아야 한다. 북두칠성을 칭하는 용어가 사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 또는 전이된 것이다. 북두칠성신을 위하는 칠성제와 불도맞이, 북두칠성신과 사신을 동시에 위하면서 북두칠성신에서 사신으로 전이되는 <칠성본풀이>, 사신을 위하는 칠성새남이라는 세 가지 신앙 형태는 제주도에 칠성신앙이 사신신앙과 교섭하며 전승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칠성제는 제주도의 일반곳에서 행해지는 불도맞이나 칠성제와 함께 모두 칠성신앙적 기자의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칠성본풀이>에서 일곱성군 중 넷째 성군이 장설용 부부의 목숨을 보존하게 해 주는 내용은 수명 연장을 비는 칠성제의 주된 목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칠성본풀이>의 칠성기자 화소에 보이는 칠성신의 행위는 실제 장수(長壽)와 기자(祈子) 치성을 목적으로 북두칠성신에게 제의를 행하던 칠성신앙의 형태가 그대로 본풀이에 수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신변신화소와 북두칠성

<칠성본풀이>에는 '칠성신'이라는 이름으로 북두칠성신과 사신, 두 가지 신격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사신(蛇神)으로 변신한 것을 계기로 이전은 북두칠성신, 이후는 사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풀이 내에서 자연스

럽게 교체된다. 이 두 신격은 북두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이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대상이며, 북두칠성은 하늘의 별자리 중 하나이고, 뱀은 지상의 생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표면적인 친연성은 없어 보인다. <칠성본풀이>는 이 두 신앙 중 사신신앙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본풀이다. 제주도의 사신신앙은 당신 혹은 집안의 조상신으로 사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육지부에서는 거의 사라졌음에 비해 제주도에서는 전도에 확산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신앙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신으로서의 사신은 칠성신이라고 부르며, ‘안칠성’과 ‘밭칠성’으로 구분한다. 안칠성은 집 안 고팡에, 밭칠성은 집 밖 칠성놀에 모신다. 이는 육지부에서 장독대에 칠성신을 모시는 것과 유사한데, 이때의 신격이 북두칠성신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와 다르다.³¹⁾

현용준·현승환은 제주도와 본토의 뱀 신앙을 비교하면서 안칠성은 집안 창고나 광 등의 쌀독에 뱀신을 모시는 육지부의 업신앙과 유사하며, 밭칠성은 집 바깥에 곡류를 신체로 모시는 육지부의 터줏가리·조상단지 등의 신앙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둘은 모두 풍농신이나 곡신을 숭배하는 성향이 강하여 용사신앙인 풍농신신앙의 일종으로, 한국본토에서는 사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사라졌으나, 제주도에서는 관의 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 전승되어 온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³²⁾. 이렇게 보면 안칠성과 밭칠성은 모두 뱀신을 모시는 신앙적 형태의 일부로서, 장독대에 칠성신을 모시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본토의 업신앙이나 제주도의 안칠성, 밭칠성은 모두 독 안에 쌀을 넣어 풍농이나 부를 기원하는 사신신앙의 한 형태이다. 이에 비해 장독대에 칠성신을 모시는 것은 정한수를 떠 놓고 집안 사람의 수명이나 복을 기원하는 칠성신앙의 형태이다. 칠성신 역시 고대 농경사회에서부터 풍요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육지부에서 이 둘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집 안과 밖에 뱀신을 모시면서 이름을 ‘칠성신’으로 부르고 있어, 사신신앙과 칠성신앙이 절묘하게 통합된 독특한 신앙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하늘의 북두칠성과 땅의 뱀이 물리적 거리와 외적 성질의 차이를 극

31) 조성운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99쪽.

32)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40-47쪽.

복하고 칠성신이라는 신명(神名)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한 원인의 하나로 두 대상이 신격화되었을 때 갖는 직능과 성격의 유사성에 착안해 볼 수 있다. 복두칠성과 뱀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친연성이 신앙민들에게 받아들여져 사신신앙과 칠성신앙의 결합을 유도한 것이다. 특히 뱀을 칠성이라 부르고 있으므로, 복두칠성의 신성한 이미지를 뱀에 도입함으로써 뱀의 신성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³³⁾. 이는 뱀의 속성이 복두칠성의 신성한 속성에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둘은 모두 고대부터 물과 관련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뱀은 수신이면서 풍농신(豐農神)인 용신과 같은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용신신앙은 중국의 사해용왕(四海龍王) 사상과 관련되는데, 원래 중국의 사해신 사상에는 용이 등장하지 않고 뱀이 등장한다. 중국의 『산해경』에 등장하는 사해신의 모습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새이며, 뱀을 귀걸이로 하거나 뱀을 밟고 있는 기괴한 형상이다. 이에 반해 인도 신화에는 인면사미(人面蛇尾)의 신으로 뱀을 신격화한 용왕(Naga Raja)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불교성립 이후에는 불법을 수호하고 흥운강우(興雲降雨)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법행룡(法行龍)의 모습으로 존속하였다. 이후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중국의 사해신 사상은 불교의 용왕 관념과 결합되면서 도교의 사해용왕 사상으로 전개된다³⁴⁾. 이러한 중국이나 인도의 용신신앙은 수신, 농경신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 고유의 용신신앙과 결합하여 전승되어 왔다. 용자(龍子)의 고어가 ‘미르 미리’인 것으로 볼 때, 물을 관장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은 이를 기우제의 대상으로 신격화하였으며, 이것이 한자의 유입으로 ‘용(龍)’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수신이 곧 농경신이며, 이는 곧 용신임을 개념화한 것이다³⁵⁾. 따라서 뱀과 용, 그리고 물의 친연성은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용과 뱀을 동일시하는 사고는 무속 제의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33) 이수자, 「구렁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 『한국민속학보』 5, 1995, 165~166쪽.

34) 서연대, 「세계의 해양신명과 분류 시론」,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85-88쪽.

35) 조석래, 「용신신앙과 고전문학」, 『논문집』 30, 진주교육대학교, 1986, 13쪽.

제주도의 작은곳 중 하나인 <용놀이>는 나주금성산신인 ‘천구아구대뱀이’라는 큰뱀을 잡는 놀이곳인데, 이 뱀은 머리는 하늘에, 꼬리는 땅에 닿은 용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청룡·황룡이라 칭하는 두 마리 뱀에게 술을 먹여 죽이는 장면이 연출된다³⁶⁾. 뱀을 청룡·황룡으로 칭하는 것이나, 이 뱀을 죽이는 놀이를 <용놀이>라고 하는 데서 뱀과 용을 동일시하는 고대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칠성본풀이>의 사신칠성은 ‘오곡풍등(五穀豐登)’을 시켜주는 곡신이며 농경신으로서 집안의 富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이라는 점에서 용신과 같은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사신신앙은 곧 용신신앙인 것이다³⁷⁾. 이런 의미에서 <칠성본풀이>는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맥락에서 용신적 성격의 뱀을 등장시켜 신격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풀이라 하겠다.

북두칠성 역시 고대부터 기우(祈雨)나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후한서』와 『구당서』에는 고구려인들이 성신(星辰)을 숭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⁸⁾, 특히 『후한서』에서는 주(註)를 달아 ‘영성(零星)’은 ‘용성(龍星)’을 뜻하는 것으로 농사를 상서롭게 하는 대상이며, 진일(辰日)에 소를 잡아 제사 지내었는데 이 진(辰)의 신을 ‘영성(靈星)’이라고 하였다³⁹⁾는 설명에서 성신을 곧 풍농신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성신이 곧 북두칠성은 아니지만, 고구려 고분(古墳)에 칠성벽화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은⁴⁰⁾ 고구려시대부터 성신신앙의 일종으로 북두칠성신앙이 존재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칠성산(七星山)’, ‘칠성도(七星圖)’, ‘효성대(曉星臺)’와 ‘칠성대(七星臺)’에 대한 기록⁴¹⁾ 역시 칠성신앙의 일면을 보여

36) 문무병, 앞의 논문, 41-42쪽.

37)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22쪽.

38) 『後漢書』 동이전 고구려조, “好祠鬼神社稷零星”; 『舊唐書』 동이전 고구려조, “其俗多淫事靈星神日神”

39) 『後漢書』 동이전 고구려조, “零星 音義 龍星左角曰 天田則農祥也 辰日祀 以牛 號曰零星 風俗通曰 辰之神爲靈星 故以辰日祠於東南也”

40) 서경진, 「한국칠성신앙을 통해 본 도·불교섭관계」, 46쪽.

41) 『신증 동국여지승람』 17, 임천군 산천조, “칠성산(七星山) : 군 남쪽 10리에 있다. 널찍한 평야에 일곱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형상이 칠성(七星)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38, 제주목 고적조, “칠성도

준다. 조선시대 중엽 이후에는 북두칠성 신앙이 모든 성신신앙의 핵심이 되었는데⁴²⁾, “1416년(태종 16) 북두칠성에 비를 비는 초제(醮祭)를 소격전에서 지냈으며, 이어서 태종을 위해 축수(祝壽)도 행하였다.”⁴³⁾는 기록은 조선시대의 북두칠성신앙이 기우제의 일환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칠성을 모시는 날로는 칠월칠석날이 가장 많은데⁴⁴⁾, 칠월칠석이 우기(雨期)인 여름에 돌아오는 절기라는 점에서 칠성신앙이 기우와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견우와 직녀 설화가 비와 연관된다는 사실 역시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다. 즉 북두칠성은 풍농의 신으로 인식되면서 농사와 직결되는 기우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일곱이라는 수가 중첩되는 ‘칠월칠석’날 제를 지냄으로써 풍요와 안녕을 비는 신앙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칠성신앙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민간신앙에 매우 성행한 신앙임을 알 수 있다. ‘칠성산’과 ‘칠성대’에 대한 기록⁴⁵⁾은 육지부에서 풍농신의 대상으로 사신보다는 칠성신이 더욱 오랫동안 강하게 숭배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의 세 성신이 처음 나와 삼도를 나눈 후 북두성 모양으로 대를 쌓고 ‘칠성도’라 이름 하였던 기록⁴⁶⁾은 제주 역시 고대로부터 칠성신앙이 존재해 왔음을 알려 준다. 칠성신앙의 지속적인 전승은 사신신앙이 성행한 제주에서도 사신신앙에 동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 형태로 남아 ‘칠성신’이라는 신격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七星圖) : 주 성 안에 있다. 돌로 쌓았던 옛 터가 있다. 삼성(三姓)이 처음에 나와서 삼도(三徒)를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北斗星) 모양으로 대를 쌓아 나누어 응거하고 인하여 칠성도(七星圖)라고 이름하였다.”; 『신증 동국여지승람』 52, 가산군 고적조 “효성대(曉星臺) : 효성산에 있다. 속담에 옛날 별(星)에게 제사지내던 곳이라 한다. 칠성대(七聲臺) : 고성(古城)안에 있다.”

42) 서경전, 「한국의 칠성신앙 연구」, 88쪽.

43)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5월 정미조.

44)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159, 2012, 161쪽.

45) 『신증 동국여지승람』 17, 임천군 산천조. 앞 각주 기록과 동일함.; 『신증 동국여지승람』 52, 가산군 고적조. 앞 각주 기록과 동일함.

46) 『신증 동국여지승람』 38, 제주목 고적조. 앞 각주 기록과 동일함.

이와 같이 북두칠성과 뱀은 풍요신적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친연성이 있다. 제주도의 전승민들은 두 대상이 지닌 내적 친연성에 근거하여 칠성신앙을 사신신앙과 결합시킴으로써 풍요를 기원하는 독특한 신앙 형태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결합은 뱀을 더욱 신성화함으로써 ‘칠성새남’과 같은 제의를 형성하였다. 칠성새남은 뱀을 죽이거나 죽은 뱀을 보고 병이 났을 때 이를 치료하는 치병굿으로서⁴⁷⁾ 여기에서의 칠성신 역시 사신을 가리킨다. 이는 뱀이 악신(惡神)임을 강조하기 보다는 뱀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신성시하려는 사고의 반영으로서 사신신앙에 칠성신앙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IV. <칠성본풀이>의 신앙사적 의미

1. 칠성신앙과 칠성신화의 존재 양상

과거 동양의 천문학은 인사(人事)와 밀접한 점성학(占星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농경생활을 중심으로 한 고대인에게 모든 현상은 하늘의 뜻이 표현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점성학은 더욱 발전한다. 그 중 하늘에 매달린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의 의지를 현시(顯示)하는 화신(化身)이요 정령(精靈)으로서, 각각 인간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일월성신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다. 성신 중 북두칠성(北斗七星)은 모든 인사(人事)를 주관하는 성수(星宿)로 인식되면서 민간에서 주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전래되어 왔다⁴⁸⁾.

실제 북두칠성은 1년 내내 볼 수 있는 주극성(周極星)이며, 국자 모양으로 눈에 잘 띄어 북극 중심의 동양천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동양천문의 기본 별자리 체제인 3원 28수와 그 체제 내에서의 북두칠성의 위치를 보면 모든 곳에서 북두칠성이 중앙에 위치하여 표시되

47) 현용준, 앞의 책, 18쪽.

48) 최인룡, 「古小說에 나타난 星宿의 性格 考察」,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아세아문화사, 1989, 209-220쪽.

고 있다. 28수는 천체의 기준 별자리 역할을 하는데⁴⁹⁾, 그 중심에 복두칠성이 있다는 것은 고대부터 복두칠성이 매우 중요한 별자리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도교는 후한 말엽에 형성되어 원시 종교 형태인 각종 주술과 자연숭배 등의 풍습, 불교, 유교 등 당대 여러 형태의 신앙을 혼합하면서 종교적 형태를 갖추었는데⁵⁰⁾, 민간의 칠성(七星)숭배를 흡수하면서 복두신앙이 도교의 중요한 의례로 정착되기에 이른다⁵¹⁾. 도교에서는 일곱 성신의 명칭을 탐랑(貪狼), 거문(巨門), 녹존(祿存), 문곡(文曲), 염정(염정), 무곡(武曲), 파군(破軍)으로 칭하는데⁵²⁾, 각각 탐랑성은 자손, 거문성은 어려움과 이별, 녹존성은 업의 장애, 문곡성은 구하는 바, 염정성은 온갖 손해, 무곡성은 복과 덕, 파군성은 수명을 관장한다고 한다⁵³⁾. 복두칠성신앙은 불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불경에 복두칠성 숭배에 관한 내용을 적고, 사찰에 칠성각(七星閣)을 설치하는 등 중요하게 섬겨졌다⁵⁴⁾.

도교가 현세적이며, 원시의 민간신앙 특히 자연숭배나 주술 등을 혼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간신앙이나 무속과의 상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교와 민간신앙에서 공통적으로 숭배되는 성신(星神), 칠성신(七星神), 일월성신(日月星辰), 천신(天神), 산신(山神), 등은 도교가 한국 재래의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⁵⁵⁾. 이 중 도교적 개성이 강한 신격 중 하나인 칠성(七星)은 장수신(長壽神)으로 신앙되어, 무속에서도 ‘칠성굿’이 있고, 전국 각지에서 기자(祈子)와 육아를 위한 치성에서도 칠성신에게 제를 올린다. 이는 도교에서 복두칠성이 인간의 수명과 부귀·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

49) 이수년, 「동양천문학상 복두칠성의 의의와 역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33-36쪽.

50) 도교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함. 차주환, 「한국도교의 종교사상」, 『도교와 한국문화』, 아세아문화사, 1989, 465-467쪽.; 김태곤, 「한국민속과 도교」, 『도교와 한국문화』, 아세아문화사, 1989, 528쪽.

51) 최인룡, 위의 글, 219쪽.

52)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 99-100쪽.

53) 이수년, 위의 논문, 60쪽.

54) 최인룡, 위의 글, 220쪽.

55) 김태곤, 위의 글, 527-538쪽.

되던 것을 고려나 조선의 왕실에서 받아들여 칠성제를 지내었고, 이것이 민간에 점차 확산되면서 칠성신의 장수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⁵⁶⁾.

<칠성본풀이>나 <칠성풀이>와 같은 서사무가에서 신격의 명칭이 ‘칠성’이고, 칠성신의 직능이 장수나 기자에 있다는 것은 도교에서 숭배하는 칠성신과 다름이 없다. 이는 칠성신앙이 민간신앙에 정착되면서 무속에도 영향을 끼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간신앙은 자연물을 신격화시켜 길흉화복을 점치거나, 기자(祈子)나 장수(長壽)와 같은 현세적 염원을 담고 있다. 이 중 기자나 장수와 같이 인간의 제한적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원은 구체적인 제의를 행하게 하고, 이와 함께 칠성신을 인격화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칠성신화로서의 서사무가를 만들어내었다. 이런 점에서 칠성신이 등장하는 서사무가 <칠성본풀이>나 <칠성풀이>는 칠성신앙을 민간신앙으로 정착시켜 온 고대인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제주도의 <칠성본풀이>는 육지부의 <칠성풀이>와 명칭이 유사하지만, <칠성풀이>가 칠성신만을 신격화시킨 데 반해, <칠성본풀이>에는 사신의 신격화과정이 함께 나타나 있어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교합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앙사적 의의가 크다.

<칠성풀이>는 한반도 서남부와 북부지역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로 칠성님과 일곱 아들이 칠성신이 되기까지의 내력담이다⁵⁷⁾. 제주도의 <칠성본풀이>가 사신이 된 칠성신의 내력담으로서 사신신화라면, <칠성풀이>는 북두칠성신의 내력담으로서 칠성신화에 해당한다. <칠성본풀이>와 <칠성풀이>는 각각 뱀과 북두칠성이라는 대상의 신격화 과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신화이다. 그러나, <칠성풀이>에서 칠성신이 기자(祈子)의 대상이며, 인간의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생신수호 신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⁵⁸⁾ <칠성본풀이>의 사신칠성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본풀이의 사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6) 이능화, 『조선도교사』, 한국학연구소, 1980, 290-293쪽.

57)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82-88쪽.

58) 홍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7, 19-20쪽.

<칠성풀이> (추원)

삼진제왕님이 인간을 마련하시고
 칠성님이 명줄을 주셔서
 동두칠성 전일성 남두칠성 전일성
 서두칠성 전일성 북두칠성 전일성
 황두칠성 전일성 화강칠성 전일성
 용궁칠성 전일성 오덕수덕 전일성
 만덕수덕 전일성칠성님들께서 불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삼천갑자 동방석이 명을 주시고
 불의 제석님들께서 면식을 여전하고
 석순에 가진 복록을 점지해 주시소서⁵⁹⁾

<칠성본풀이>

나는 인간에 북두칠성으로
 들어상근 맹광 복을 제기곡
 애기 번성을 시기곡
 가지전담 유기제물
 뭇스쉬 쇠막쉬 오곡번성
 육국버려 인간에 상을 받으며.
 칠성한집 마누라님⁶⁰⁾

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칠성본풀이>와 <칠성풀이>에서 칠성신은 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전자는 사신칠성이고 후자는 북두칠성신이지만, 둘 다 북두칠성신의 직능이 나타나므로 칠성신앙을 보여주는 신화로 묶이는 셈이다. 물론 위에서 예로 든 <칠성본풀이> 각편은 사신칠성이 북두칠성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독특한 자료에 해당하여 사신이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좌정하는 일반적인 <칠성본풀이> 내용은 아니지만, 각편을 통해 칠성신앙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칠성본풀이>의 사신은 부신(富神)적 속성이 강하고 <칠성풀이>의 칠성신은 수복(壽福)신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가정의 평안과 생산을 돕는 생산수호신적

59) 이영금, 『전북 셋김굿』, 민속원, 2007, 182쪽.

60) 진성기, 앞의 책, 161쪽.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칠성풀이>는 일곱 아들이 일곱 칠성신이 되며, 신앙민들은 일곱 칠성신이 된 신격에게 제의를 행하는 것이므로 <칠성본풀이>보다 칠성신앙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출생화소에 서 보이는 칠성신앙적 면모가 신의 좌정까지 유지되지 못한다. <칠성풀이>에서는 일곱 아들이 일곱 칠성신이 되며, 신앙민들은 일곱 칠성신이 된 신격에게 제의를 행하는 것이므로 <칠성풀이>는 완벽한 칠성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칠성풀이>에서 <칠성경>을 창하는 부분은 우리 나라 사찰에 있는 칠성각(七星閣)의 의례인 칠성청(七星請) 중 성군청(星君請)과 유사하다⁶¹⁾. 또한 이는 제주도의 일반굿인 칠성제의 ‘신청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이 내용은 다시 <칠성본풀이> 각편인 ①과 ⑩의 서두 부분과 유사하다. 모두 칠원성군의 이름을 부르며 강림을 청하는 내용들이다. 각각의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칠성경>

칠성님여래 대제군 복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궁궐 하복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괴탐랑 거문녹존 문곡염전 무곡파군……⁶²⁾

<성군청>

…복두제일 자손만덕(子孫萬德) 탐낭성군
복두제이 장난원리(障難遠離) 거문성군
복두제삼 업장소제(業障消除) 녹존성군
복두제사 소구개득(所求皆得) 문곡성군
복두제오 백장진멸(百障殄滅) 염정성군
복두제육 복덕구족(福德具足) 무곡성군
복두제칠 수명장원(壽命長遠) 파군성군……⁶³⁾

<신청례>

일곱칠원성군 동의 동산사별 지국성 금바탕으로 하전흡서.

61) 이수년, 앞의 논문, 59쪽.

62) 이영금, 앞의 책, 180쪽.

63) 이수년, 위의 논문, 60쪽. 필자 문단 재배열.

서방 서산사별 성인님도 금바탕으로 지국성 하전흡서.
 남악국 노인성님도 금바탕으로 지국성 하전흡서.
 해즈복방 북두칠원성군 대성불도 대성군도 신느립서.
 간성군도 신느립서. 목성군도 신느립서. 원성군도 신느립서.
 수성군도 신느립서. 계성군도 신느립서. 진성군도 신느립서.....⁶⁴⁾

<칠성본풀리>

...칠월칠석밤이 잿상일곱 개 뽕 일곱 개
 초석 일곱 개 밥 일곱 그릇 재수 일곱 개
 찻물 일곱 그릇 포벽 일곱 개를 올려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더니
 원성군과 목성군과 계성군과 명성군과
 북성군과 연성군의 옥황에서 내려와서.....⁶⁵⁾

<칠성본풀이>

...정성을 디령근 칠성제를 지나간다.
 갑을동방 천우성도 내립서. 경신방은 직녀성도 내립서.
 행정방 노인성도 내립서. 북성방은 대성군도 칠월성군
 제일에 대성군도 내립서. 제이에 원성군도 내립서.
 제삼에는 내립서. 제사에는 유성군도 내립서.
 제오에는 강성군도 내립서. 제육에는 기성군도 내립서.
 제칠에는 관성군 칠성님도 내려삼서.....⁶⁶⁾

각 자료에서 차례로 지칭되는 북두칠성신의 이름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칠성경>과 <성군칭>북두칠성의 이름과 순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신칭괘>와 <칠성본풀이>에서도 약간의 순서와 명칭이 다를 뿐 대체로 일치한다. 이러한 양상은 칠성신앙과 불교와의 습합 양상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칠성본풀이>와 <칠성풀이>가 모두 칠성신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서사무가임을 말해 준다. 호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칠성풀이>가 칠성신의 탄생에서 좌정까지 온전한 칠성신의 내력담으로

64) 현용준, 앞의 책, 429쪽. 필자 문단 재배열.

65) 적송지송·추엽육, 『조선무속의연구』상, 민속원, 1988, 520쪽.

66)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88-289쪽. 필자 문단 재배열.

전승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전승민에게 칠성신앙이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칠성풀이>에서는 일곱 아들은 칠성신의 아들로 태어나 칠성신적 속성을 강하게 이어받는 한편, 죽어서 하늘의 일곱 칠성신이 됨으로써 완벽한 칠성신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칠성본풀이>는 사신신앙의 영향으로 칠성신앙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온전한 칠성신화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출생화소로만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칠성본풀이>에서 주인공은 칠성신의 영기로 태어나 칠성신적 속성을 간접적으로 이어받게 되고, 스님과의 결연으로 낳은 일곱 딸은 마리 수에서 보이는 ‘일곱’이라는 수의 친연성을 제외하면 칠성신적 속성이 더욱 약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칠성풀이>에서 일곱 칠성신은 기자와 수명장수의 신직을 부여받기 위한 고난의 가정을 거친다. 이에 비해 <칠성본풀이>에서 사신칠성은 단골들에게 흥함을 준 후 부를 획득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성을 획득한다. 이는 <칠성풀이>와 <칠성본풀이>의 신격이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칠성풀이>에서 칠성님의 아들이 칠성신이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비해 <칠성본풀이>에서 사신이 칠성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사신이 칠성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칠성기자 출생화소뿐이다. 이는 <칠성본풀이>의 서사가 처음과 끝을 연결하여 신격을 칠성신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알게 한다. <칠성본풀이>의 서사 과정 중 사람이 뱀으로 변신하여 입도한 후 사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은 다른 당신본풀이에도 보이는데, 유독 <칠성본풀이>에서는 칠성기자 화소와 칠성신으로 좌정하는 화소가 들어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신신화에 칠성신화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본풀이 형태임을 알게 하며, 사신신앙에 칠성신앙이 결합되는 신앙사를 보여준다.

한편, <칠성풀이>가 일곱 아들이 하늘의 칠성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이라면, <칠성본풀이>의 출생화소는 하늘의 일곱 칠성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행하는 실질적 권능을 보여준다. 따라서 칠성신을 중심으로 본다면 <칠성풀이>와 <칠성본풀이>가 선후관계에서 칠성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화가 되는 셈이다. 이 둘을 엮어 신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칠성님의 일곱 아들은 계모를 징치하고 칠성신이 된 후, 칠성제를 받으며 인

간 세상에 내려와 인간의 수명과 잉태를 관장하는 신이 되는 이야기가 된다. <칠성본풀이>가 사신신화이면서도 굳이 출생화소부분에서 장황하게 칠성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칠성신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화공동체이자 신앙공동체인 집단에 이 출생화소가 배척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칠성신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칠성신앙과 칠성신화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칠성신의 권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칠성본풀이>를 사신신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칠성신앙적 측면에서의 고찰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칠성본풀이>에 나타난 신앙의 통합 양상

제주도에서 ‘칠성’의 의미는 양면적이다. 북두칠성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뱀신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의도적으로 이 둘을 교묘히 결합시키는 본풀이에서 잘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 북두칠성신과 뱀신이 같은 이름인 ‘칠성신’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도 본풀이는 설명한다. 그러나, 본풀이의 주인공은 뱀신으로서의 칠성신이다. 북두칠성신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뱀신으로서의 신격이 강조된 형태인 것이다. 출생 화소 이후에는 ‘칠성신’이라는 신격이 모두 뱀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며, 북두칠성신에 대한 언급은 이름의 친연성 이외에는 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뱀을 ‘칠성’이라 지칭하는 것에서 칠성신앙의 영향이 드러난다.

육지부에서 칠성이 북두칠성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제주에서 뱀신의 속성까지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사신신앙과 칠성신앙이 따로 존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로 결합하여 전승되는 변이과정을 거쳤음을 말해준다. 사신신앙과 칠성신앙 중 어느 것이 먼저 생성된 신앙 형태이든, 결국 사신신앙이 더욱 강하게 자리잡았으며 사신신앙 중심으로 칠성신앙이 결합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신앙 결합 과정이 본풀이에 수용되어 <칠성본풀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당신화로서의 사신신화가 아니라 일반신본풀이로서의 <칠성본풀이>가 의미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전승되던 칠성신앙의 일반적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데 있다. 제주도에도 북두칠성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

는 칠성신앙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그것이 특이하게도 제주도에서는 사신신앙과 결합하여 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칠성본풀이>에서 보이듯 칠성신앙의 영향력은 기자치성에 강하게 남아있었다. 육지부에서 칠성신이 일반적으로 수명과 관련된 신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생명의 잉태와 관련된 신격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칠성기자 출생은 북두칠성신앙이 들어온 이후의 것이고, 더 고대적 모티프인 본래의 사신 출생 화소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67), 사신유래담에 칠성기자형 화소가 삽입되어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북두칠성신이 기자신적 신격으로 강하게 신앙되었음을 의미한다.

<칠성본풀이>는 사신신화로서 주목을 받아 칠성신앙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자의례로 칠성기도를 하는 칠성기자 화소에서 칠성신앙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칠성기자 화소에는 칠성신이 인간 세상에서 행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며, 이런 이야기는 북두칠성 설화와 견주어볼 만하다. 또한, 칠성신의 행위는 다른 일반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독자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북두칠성과 관련된 기자화소에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칠성본풀이>와 관련하여 온전한 칠성신화를 구현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칠성신앙은 도교와 불교가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형성된 신앙으로서 불교의 밀교경전(密敎經典)이나 도교의 도장(道藏)에는 칠성을 숭배하고 치제(致祭)하면, 연명장수(延命長壽), 무병재(無兵災), 무병재(無病災), 무액(無厄), 득자손만덕(得子孫萬德)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68). 칠성에 제를 지내어 장수나 득자를 기원하였던 것은 제주도의 일반굿인 <칠성제>와 유사하며, 병을 치료하고 액을 막는다는 것 역시 제주도의 일반굿에서 행해지는 <칠성새남>에서 뱀에 관련된 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사신칠성을 위하는 <칠성새남> 역시 칠성신앙이 지닌 치유적 속성과 연관된다. 제의의 명칭에 ‘칠

67) 현용준·현승환, 앞의 논문, 29쪽.

68) 서경전, 「한국칠성신앙을 통해 본 도·불교섭관계」, 9쪽.

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단순 논리에서가 아니라, 칠성제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에 칠성신앙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신앙의 정착과 전승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 형태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칠성제와 관련한 제주의 다양한 제의 형태는 고대의 칠성신앙적 형태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칠성본풀이>는 칠성신앙의 전승과 변이 양상, 제주도 사신신앙과의 교류와 변이 양상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 다른 지역에서 칠성신앙이 사신신앙과 교류하여 뱀을 칠성이라 칭하는 예는 없기 때문에 <칠성본풀이>를 통해 칠성신앙에 대한 제주도 전승 집단만의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칠성신앙이 사신신앙과 일정한 교류를 하면서도 사신신앙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두 신앙 체계가 따로 또는 함께 존재하는 양상 역시 특이하다. 사신신앙은 부신(富神)으로서의 속성이 강한 반면 기자신적 속성은 여전히 복두칠성 신앙에 머무르는 양상이다. 그러나 복두칠성과 뱀을 모두 '칠성신'으로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습합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이는 제주도만의 특이한 신앙 형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칠성본풀이>가 사신신화이지만 칠성기자 화소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여 칠성신앙과의 관련 양상을 살펴보았다.

<칠성본풀이>는 출생화소에서 칠성기자형과 사찰기자형으로 구분되는데, 칠성기자형 화소에는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에서 칠성제와 칠성신의 관계, 칠성신의 행위와 직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칠성신앙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출생 이후의 서사는 칠성신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 칠성신이 되거나 칠성신적 속성을 지닌 신이 되는 완벽한 칠성신화로서의 서사를 구현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신(蛇神)이 되기까지의 과정에 집중된 사신신화로 바뀌면서 칠성신앙적 측면은 약화된다.

그러나 <칠성본풀이>의 칠성기자 화소는 제주도의 일반곳인 <불도

맞이>나 <칠성제>에서처럼 북두칠성신을 기자신적 신격으로 숭배하는 칠성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또한, 북두칠성의 영기로 태어난 아이가 사신으로 변신하였으며 칠성신으로 숭배될 수 있었던 것은 고대적 형태인 칠성신앙이 민간신앙으로 잔존했기 때문이며, 뱀과 북두칠성이 모두 풍농신적 속성을 지닌 대상이라는 점에서 두 신격을 모두 조화롭게 숭배하는 면모가 발견된다.

대체로 하나의 신화는 하나의 신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칠성본풀이> 역시 사신의 내력담에 집중된 서사를 보인다. 그런데 <칠성본풀이>의 경우 칠성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점차 주인공이 사신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서사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칠성신과 사신, 두 신격은 각각의 신성성을 보여주면서 모두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신의 내력담에 집중되어 있어 사신신앙적 측면이 강한 본풀이임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기저에 보이는 칠성신앙적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사신의 이름을 ‘칠성’이라 부르며 이 두 신격을 포괄하는 <칠성본풀이>의 구현은 칠성신앙과 사신신앙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따라서 <칠성본풀이>는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칠성신앙이 제주도에서 어떠한 신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승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본풀이라는 데에 신앙사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後漢書』

『舊唐書』

『대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88.

적송지송·추엽육, 『조선무속의 연구』상, 민속원, 1988.

『風俗巫音(呪祀文)』上,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이영금, 『전북 씻김굿』, 민속원, 200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만태,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159, 2012.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헌선,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

문무병, 「탐라고문화와 칠성신앙」, 『민족미학』 11, 민족미학회, 2012.

박종성, 「구비전승의 삼태성과 북두칠성 신화 일고」,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서경전, 「한국칠성신앙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14, 1980.

서경전, 「한국칠성신앙을 통해 본 도·불교섭관계」, 『한국종교』 10, 1985.

서대석, 「<칠성본풀이> 연구」,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서영대, 「세계의 해양신령과 분류 시론」, 『한국 해양신앙과 설화의 정체성 연구』,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9.

이수년, 「동양천문학상 복두칠성의 의의와 역리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수자, 「구령이업 신앙의 성격과 형성 기원(1)」, 『한국민속학보』 5, 1995.

조석래, 「용신신앙과 고전문학」, 『논문집』 30, 진주교육대학교, 1986.

조성윤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아세아문화사, 1989.

한국도교사상연구회편, 『도교와 한국문화』, 아세아문화사, 1989.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 199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홍나래, 「무속신화 <칠성풀이>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7.

황석주, 「지리산 일대 불교사찰과 토속신앙의 공존양상-산신·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of the Chilseong Faith in "Chilseong Bonpuri"

Byeon Sook-ja*

One of the 12 Bonpuris of Jeju Island, "Chilseong Bonpuri" is the only snake deity Bonpuri as a common Shinbonpuri. The divinity of "Chilseong Bonpuri" has a title of "Chilseong deity" even though it is a snake deity, thus being particular for being used in mixture with Bukdutchilseong deity. Focusing on the dual titles of the divin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Chilseong faith in "Chilseong Bonpuri" as a snake deity Bonpuri.

"Chilseong Bonpuri" is divided into the Chilseong Gija type and the Sachal Gija type according to the stories related to birth. The stories of the Chilseong Gija type specifically present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lseong ceremony and deity and the acts and functions of Chilseong deity in the process till the birth of a child, demonstrating the attributes of Chilseong faith strongly. The descriptions after the birth, however, weaken in the aspects of Chilseong faith as it is changed to a snake deity myth concentrated on the process of becoming a snake deity.

However, the Chilseong Gija stories of "Chilseong Bonpuri" have something to do with worshipping the Bukdutchilseong deity as a Gija

* Korean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ivinity in Buldomaji, a common gut of Jeju, or Chilseong ceremony, as well as show the process of Chilseong faith being incorporated into Samshin faith as it was passed down while negotiating with the Samshin faith. Born out of the vigor of Bukduchilseong, the baby is transformed into a snake deity and worshiped as the Chilseong deity, which finds its affinity in the attributes of the snake and Bukduchilseong as deities praying for good harvest. "Chilseong Bonpuri" contains strong aspects of a snake deity myth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influenced by the Chilseong faith, which means that it was created and developed in the religious zone where the power of a snake deity was stronger than that of a Chilseong deity.

"Chilseong Bonpuri" holds some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faith in that it shows the patterns of faith integration and the process of faith transmission including the Chilseong faith, Samshin faith, and snake deity faith.

Keywords: "Chilseong Bonpuri," "Chilseong Puri," Chilseong faith, snake deity faith, history of faith

교신 : 변숙자 363-791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교육과대학원
(E-mail : deepeace@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 04. 02.

심사완료일 2014. 06. 20.

게재확정일 2014. 06. 25.